

산업부 + 중기부 + 현대차·기아 + 부품 협력업체**자동차 공급망 탄소감축 위해 손을 맞잡다!**

- 11.17일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 개최

→ 1차·2차 협력업체의 연쇄적 탄소감축 추진

정부와 현대차·기아가 손을 맞잡고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들의 탄소 감축을 본격 지원한다. 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1.17일(월)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기업(중소·중견) 87개사(약 200명) 및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과 함께 자동차 산업 공급망의 탄소 경쟁력 제고를 위한 ‘자동차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협약식’을 개최하였다.

최근 EU 등 주요국의 탄소 규제는 기존 ‘사업장 단위’에서 ‘제품 단위’로 정교화되고 있으며, 이에 제품 생산 과정에서 발생하는 탄소발자국이 새로운 수출 규제의 잣대로 등장하고 있다. 이에 정부와 현대차·기아는 부품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우리 자동차 산업 전반의 탄소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힘을 모으기로 한 것이다.

산업부는 올해 4개 공급망 컨소시엄*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내년도에는 ‘산업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 사업’(‘26년 신규)을 통해 공급망 전반으로 본격 확산할 계획이다. 중기부도 ‘중소기업 탄소중립 설비투자 지원’ 사업의 지원 규모를 한층 확대하여 자동차 부품 중소기업들의 저탄소 전환을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 ‘25년 공급망 컨소시엄 기업(4) : ①LG전자, ②포스코, ③LX하우시스, ④LG화학

이번 협약을 통해 산업부와 현대차·기아가 우선적으로 1차 협력업체의 탄소감축 설비교체를 지원하고, 해당 1차 협력업체는 지원받은 금액만큼을 환원하여 중기부와 함께 다시 2차 협력업체의 설비교체를 지원한다. 이와 같은 자동차 공급망에서의 ‘연쇄적 탄소 감축 효과’를 통해 민관이 함께하는 상생형 탄소 감축 지원체계가 구축될 것으로 기대된다.

현대차·기아는 자사(自社)를 넘어 협력업체의 저탄소 전환을 지원함으로써 완성차의 탄소발자국을 낮추게 되고, 이렇게 외부사업을 통해 확보한 배출권을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상쇄* 배출권 형태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 배출권거래제 대상기업이 배출권거래제 적용대상 외부 영역에 투자하여 확보한 감축 실적을 배출권으로 전환하여 배출량 상쇄(offset)에 활용(배출권거래법 제29조)

산업부 박동일 산업정책실장은 “공급망의 탄소 감축은 어느 한 기업이 단독으로 할 수 없으며, 정부·대기업·중소·중견기업 모두의 협업이 필요한 과제” 라면서, “이번 공급망 탄소 감축 협약이 2035 NDC를 넘어 우리 산업 전반의 그린전환(GX)을 가속화하고 글로벌 공급망 간 대결에서 우위를 차지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중기부 노용석 1차관은 “글로벌 공급망 탄소 규제가 강화되면서 공급망 전반의 감축 노력이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면서 “특히 부품산업 내 중소기업 비중이 높은 자동차 산업에서 공급망 차원의 선제적인 감축 노력이 이루어지는 것을 높이 평가하고 적극 지원해 나가겠다”고 언급하였다.

현대차·기아 관계자는, “이번 협약은 기업·정부·공공기관이 함께 만든 공급망 저탄소 전환의 실질적 협력 모델”이라며, “지속가능경영 실천과 산업 생태계 전환을 위한 마중물 역할을 수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산업부·중기부)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탄소 감축 노력이 산업 공급망 전반으로 확산될 수 있도록 정책적·재정적 지원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또한, 금번 자동차 공급망을 시작으로 앞으로 전기·전자, 철강, 석유화학, 반도체, 조선 등 다른 주력 산업으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을 확대해 나가고 국내 산업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역량’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산업통상부	산업정책관 산업환경과	책임자	과 장	이상은 (044-203-4240)
		담당자	주무관	이동현 (044-203-4241)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정책실 미래기술대응지원단	책임자	과 장	박승록 (044-204-7250)
		담당자	주무관	김지은 (044-204-7247)

붙임 1

「공급망 탄소 감축 상생 프로그램 협약식」 개요

□ 협약식 개요

- (목 적) 자동차 산업 공급망 전반의 탄소감축 협력 기반을 강화하고, 정부와 기업의 협력을 통해 효율적인 자원 투입 및 수출 대응력 제고
- (일 시) '25. 11. 17(월), 10:30 ~ 11:10
- (장 소) JW 메리어트 동대문(LL층 그랜드볼룸) * 서울 종로구 청계천로 279
- (참석자) 산업통상부(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중소벤처기업부(노용석 제1차관), 현대차·기아(정준철 부사장, 박찬영 부사장), 현대차·기아 협력회(문성준 회장), 자동차부품산업진흥재단(안정구 이사장) 등 약 87개 기업(200명 이상 참석)
- (협약 내용)
 - ① (정부) 수출 경쟁력 강화를 위한 탄소중립 정책·행정 지원 강화
 - ② (현대차·기아) 자동차 부품 협력업체의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전방위 지원



□ 행사 순서(안)

시간		세부내용		비고
10:30~10:39	9'	■ 행사 안내 및 주요 내빈소개		사회자
10:39~10:43	4'	■ 인사말	정준철 부사장	현대차·기아
10:43~10:55	12'	■ 축 사	① 노용석 1차관	중기부
			② 박동일 산업정책실장	산업부
			③ 문성준 협력회장	현대차·기아 협력회
10:55~11:00	5'	■ 업무협약식 소개 영상		
11:00~11:05	5'	■ 업무협약서 서명식		
11:05~11:10	5'	■ 기념 촬영		

※ 오후부터는 현대차·기아 협력기업 대상 탄소감축 관련 세미나를 연이어 진행

□ 추진 배경

- 주요국을 중심으로 기후위기 대응과 자국 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목적으로 공급망에 기반한 다양한 “글로벌 탄소규제” 도입 중
 - “사업장 단위” → “제품 단위”로 탄소규제가 정교화됨에 따라 수출기업들은 공급망에 기반한 탄소배출량 산정 및 감축 요구에 직면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공급망 단위의 탄소감축 및 검증 지원을 통해 산업계의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력 제고 및 공급망 전반의 탄소경쟁력 강화
- (사업예산) 105억원('26년 정부안)
- (지원방식) 컨소시엄당 최대 50억원 *국고보조율 중소(60%), 중견(50%)

□ 공급망 탄소파트너십 구성

- ^①대기업은 정부와 함께 협력기업 지원* 및 컨소시엄 운영·관리
 - ^②협력기업은 탄소감축 설비 도입·운영을 담당하며, 탄소 데이터 제공
- * 정부·원청기업→1차 협력사→2차 협력사에게 현금·현물 출자 및 ESG 컨설팅 제공
- 기업 생산제품 내 공급망 구조 또는 효율적인 탄소감축 효과를 고려하여 컨소시엄 형태는 기업들이 자율적 구성(직렬·병렬·혼합형)



□ 사업 개요

- (사업목적) 중소기업에 에너지 고효율 및 탄소저감 설비도입 지원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 및 탄소 규제에 대한 대응력 강화
- (사업예산) 191억원('26년 정부안)
- (지원대상) ①저탄소 공정전환이 시급한 ②자발적 감축 중소기업
 - ① 탄소국경세 도입 검토 국가 수출기업, 탄소중립 선언 대기업 협력사, 탄소多배출업종 영위기업 등 우대 지원
 - ② 감축 규제대상 아닌 중소기업
- (지원조건) 국고보조금 최대 3억원, 보조율 70% 이내
- (지원내용) 실시·설계지원(탄소중립 전략수립 및 최적 탄소감축설비 도출 등)과 설비 도입을 패키지로 지원
 - (실시·설계지원) 중소기업 탄소중립 경영전략 수립 및 에너지·온실가스 감축 설비의 도입에 필요한 컨설팅 지원
 - (설비도입지원) 탄소저감을 위한 에너지·온실가스 감축설비 구입비, 공사비, 시운전비 등 지원